

# 중증의 뇌성마비 딛고 아·태장애인경기 2관왕

## 소적새마을 안명훈군, "부처님이 도왔어요"



◇금메달 2관왕에 오른 안명훈 선수(왼쪽)가 보조자인 소적새마을 권철현 교사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훈련 때는 가장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나 봅니다. 무엇보다 함께 고생한 동생들과 함께 단체전 메달을 따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귀를 기울여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어눌하고 느린 말투로 안명훈(24) 보치아 국가대표팀 선수가 전한 금메달 2관왕에 오른 소감이다.

강원도 원주의 소적새마을 가족인 안 선수는 1일 개막된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2관왕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소적새마을은 또 한번 잔치집같은 기쁨이 넘쳐났다.

뇌성마비 장애인 9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보치아 대표 선수 중 가장 신참내기인데다 장애가 심했던 안 선수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부위는 머리뿐. 머리에 헬멧을 착용하고 보조기구인 흡통을 사용하는 BC3 종목에 출전했다. 게다가 혼자서는 경기를 할 수 없어 보조자인 권철현(30, 소적새마을 생활재활교사)씨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만 했다. '선수의 또 다른 몸'인 보조자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BC3종목에서 권 코치는

### 5년 동안 뼈를 깎는 자기와의 싸움 경기통해 세상사는 법 터득 더 기뻐

안 선수의 손과 발이 되어 경기를 함께 했고 일상에선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폈다.

6년 전 소적새마을 식구가 된 안 선수는 5년 전 보치아를 시작해, 땀뻑해진 몸을 가누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왔다. 지난 여름, 2개월 동안의 합숙훈련 후 근육강직 증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형제 같은 동료들과 권철현 코치, 또 소적새마을 식구들이 안 선수의 힘겨운 고개짓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권철현 코치는 "메달을 딴 결과보다는 명훈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다는 것이 더욱 기쁘다"며 "소적새 마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명훈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 아·태장애인경기 지원 불교 서포터즈 '금메달'

11월 1일 개막된 2002 아·태장애인 경기대회에서 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를 중심으로 보여준 불교계 시민서포터즈 활동이 금메달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0일 인도네시아 선수단 35명을 초청, 그랜드호텔에서 만찬과 축하 공연을 펼친 옹호복지관을 비롯, 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소속 복지관은 경기 응원, 초청 만찬 등으로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의 의지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옹호복지관에서 배운 만찬에 참석한 한다르토 단장을 비롯한 선수들은 한국 전통무용, 가곡 등의 공연을 감상한 후 선수단 전원이 인도네시아 노래로 화답해 절겨운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삼광사(주지 도원)는 아시안게임에 이어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활동으로 주목 받았으며 11월 2일 캄보디아와 미얀마 선수단을 삼광사로 초청, 환송법회를 열고 준비한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개금복지관은 스리랑카, 공광복지관은 라오스, 금정복지관은 파키스탄, 두송복지관은 마카오, 불운대복지관은 캄보디아, 불교TV연불공양회는 싱가포르 등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를 불심으로 치루는 주역이 되었다. 천미희기자

## 日 천태종 와사다 승정 '백제불교 초전지 법성포' 방문 "성역화 불사 동참 1000일 기도 중"

일본 천태종 와사다 예수 대승정 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와 백양사 초청으로 10월 26-27일 장



◇일본 천태종 와사다 대승정 일행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법성포 방문차 10월 26일 백양사를 방문, 백양사 스님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성 백양사와 영광 법성포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사업 현장 등지를 방문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에 22여여원을 지원한 일본 천태종을 대표해 내한한 와사다 예수 대승정은 10월 26일 환영만찬회, 27일 백양사에서 열린 대인 수행성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법회, 영광 법성포 성역화사업 현장을 돌아왔다.

와사다 대승정은 "오늘날 일본불교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은 백제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은 은혜가 크다"며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지금 1000일 기도중"이라고 말했다. 와사다 대승정 일행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29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주종직 광주지사장

### 능엄경·월인석보·장수경언해 등 희귀 고서적 9종 영인본 발행

경북대 출판부(부장 이호철교수)는 10월 30일 능엄경언해(楞嚴經譯解), 월인석보(月印釋譜), 장수경언해(長壽經譯解) 등 불교경전을 중심으로 한 국내 희귀본 고서적 9종을 영인본으로 펴내 학계와 불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능엄경언해 권1~권5는 세조7년에 부처님 분신사리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 간행된 것으로 훈민정음 초기 한국어의 표기법과 어휘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월인석보 권4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한 부처님의 전기로 월인석보 시리즈 중 아직 미발견으로 남아있던 것을 이번에 발굴하여 학계에 처음 공개되며, 능엄경언해 권4와 함께 국보급 자료로 알려져 있다.

장수경언해는 죄를 면하고 장수하는 법을 실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임란전 간행된 희귀본의 이해를 위해서 국어학적, 불교학적, 서지학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보인다.



### 대승종, 아미타괘불 점안법회

대승종(총무원장 일오)은 10월 25일 서울 강북구민회관에서 조국통일 염원 아미타괘불 점안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병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종정 도암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



### 일연스님 귀환·금산사 개산대제

금산사주지 명상은 10월 25일 조선 선조의 만수자로 일본에 끌려가 법화종 18세 법주가 됐다고 알려진 일연스님(1589-1665)의 귀환과 금산사 개산 1403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병행했다.

일주(금산사 회주),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스님과 신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일연스님의 일갈상, 서간문등 유물이 공개됐다.



### 현대불교 신행수기 모음집 출판기념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모음집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출판 기념회가 10월 26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신수회 이영자 회장을 비롯한 당선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에는 95년~2001년까지 총 7회 47권의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들이 실려 있다. 이 책은 군부대와 구치소 등에 법보시 될 예정이다.

### 동화사 백고좌 대법회 회향

대구 동화사는 10월 27일 1509주년 개산대제 및 백고좌 회향 대법회를 통일대불전에서 개최했다.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창건주 극달화상의 영정 이운식을 시작으로 통일대불 앞에서 백고좌 회향 법회를 겸한 기념 법요식으로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은 회향사에서 "개산 1509주년을 맞아 선사, 조사스님들의 유지를 더욱 여법하게 전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박원기기자

### 법당청소소식지 발행까지

서울 불광포교원 신도회 오효훈 재무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집을 찾는 분들을 맞으려고 노력해요. 눈빛만 봐서 무얼 원하지 얼추 알 수 있을 정도죠. 불교교리를 묻는 것부터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털어놓을 때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지요."

불광포교원의 '대표 포교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오효훈 보살(법명 법계성, 40, 포교원이 도신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보니,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법. 언제나 삶은 내색 한 번 안하고 신행상담을 하는 오 보살이 나름대로 터득한 포교방법이다.

불교기초교리 책을 집어든 오 보살.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많이 알아야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도회 재무를 맡고 있는 오 보살이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1997년, 경북 지장사 대구포교당 기초교리를 강의했던 마정 스님과 인연에서 비롯된다. "나 자신부터 공부해야 내 주위가 편해진다"는 마정 스님의 법문에 본격적으로 발심한 오 보살은 3년 전 남편 백석수 씨(법명 각현 43)가 서울로 전근을 오게

신부, 목사, 스님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 산사음악회가 울산 내원암주지 종선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다.

이제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은 백고좌회향 회향 법에서 "오매불망 내용이 '부모에게서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리고' 하는 화두를 들고 세를을 하면 마음의 갈등은 봄바람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는 동시에 지혜가 갖춰진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이어 호국영령천도 및 교통안전기원제, 우리전통 차문화 소개와 국악학마당 행사가 펼쳐지고, 탑돌이와 함께 만등불사를 병행했다. 대구=박원기기자

### 스님·신부·목사 한무대에서 노래

울산 내원암서 산사음악회 열려

10월 27일 지장전 봉불식을 기념해 열린 '하나됨을 위한 음악회'에 내원암 주지 종선스님과 과의 인연으로 김동규 신부, 송영용 목사 등이 찬조 출연해 음악회에 참석한 3백여 불자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 밖에도 도곡스님, 세등스님, 성조스님의 법고로 막을 올린 이날 음악회에는 동국대 국악관



◇매주 수요일 주지 마정 스님에게 <초법심자경문>을 배우고 있는 오효훈 신도회 재무(왼쪽에서 두번째).

정한다. 보시·지계 인욕 등 3개 분회를 두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는 기초교리 공부모임, 자원봉사 활동, 소식지 발간 등 사중 일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물론 사찰에 들어오는 보시금의 투명한 사용은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신도들은 절을 자기 집'처럼 여길 정도다. 특히 오 보살은 꼼꼼한 돈 관리와 깔끔한 일 처리로 운영위원회를 더욱 알차게 행하고 있어 신도들 인심이 두터웠다.

12일에 있을 사찰운영위원회 정기총회 준비에 바쁜 오효훈 보살은 불교공부에 눈 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불자로서 살고 있는 요즘만큼 신명나는 일이 없다며 활짝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철우 기자

### 추천의말



오효훈 보살은 총무 김필자, 공양주 이춘희 보살과 함께 걸레로 법당바닥을 훑어내는 것부터 소식지 발간, 행정 보조, 공간 일까지, 불광포교원의 '살림꾼 3인방'입니다. 없어선 안 될 선재보살들이지요. 매일 절에 나와 무수 일이란 알아서 척척 해내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오효훈 보살은 사찰의 대소사를 손수 챙기고, 대중의 화합을 이끄는 등 다른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우리 포교원은 신도들이 직접 사찰운영위원회를 조직,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절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소임을 맡고 있는 오 보살은워낙 임차리가 깔끔해 '독순이 보살'로 불리울 정도입니다.